

삼성전자, '인도 전략회의' 개최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21일 인도 델리(Delhi)에서 전자·IT 분야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인도에서 프리미엄 시장을 주도하는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한 「인도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10년 인도시장 매출 55억불을 달성키로 했다.

이번 전략회의에는 윤종용(尹鍾龍) 부회장과 최지성(崔志成) 디지털미디어총괄 사장, 이현봉(李鉉奉) 생활가전총괄 사장, 서남아 총괄 오석하(吳錫夏) 전무 등의 경영진과 임원진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략회의에서 인도시장이 △ 전자제품의 보급율(컬러TV 18%, 냉장고 7%, 에어컨 1%, GSM휴대폰 4% 수준)이 낮아 성장여력이 큰 시장이며 △ 휴대폰 및 IT 시장이 연평균 약 25% 성장하고

△ 고소득, 전문직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고급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 시장에서 프리미엄 제품을 위주한 차별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 일류기업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우선, 인도의 TV시장이 컬러TV를 중심으로 매년 10% 이상 성장하며, 평면 TV 시장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고, 캠퍼·MP3 등 디지털 제품의 수요가 확산되는 추세에 맞춰, 프리미엄 제품 위주 시장을 창출하고, 디지털 제품의 판매 확대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LG전자, KAIST 나노종합팹센터와 나노분야 기술 공동 연구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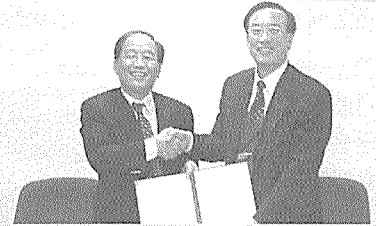
LG전자기술원장 이귀로 부사장 “LG전자는 LK나노연구센터 를 통한 學研産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나노기술 R&D 및 산업화에 더욱 앞장 설 것” 이라고 밝혔다.

LG전자가 KAIST 나노종합팹센터와 공동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나노분야 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10월 21일 LG전자와 KAIST 나노종합팹센터는 LG전자 전자기술원장 이귀로 부사장,

학술, 연구 및 연구시설 교류 협약

2005. 10. 21일 LG전자기술원 나노종합팹센터



KAIST 나노종합팹센터 이희철 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나노종합팹센터에서 'LK 나노연구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LK 나노 연구센터'는 KAIST 나노종합팹센터내 마련되며, 나노 학술, 연구 및 연구인력 교류의 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LG전자와 나노종합팹센터는 학술, 연구 및 연구시설 교류협정서를 체결함으로써 나노종합팹센터의 연구시설, 장비 및 인프라 활용을 이용한 첨단 기술 연구는 물론 연구인력 상호교류 등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LG전자는 KAIST 나노종합팹센터와 나노분야 기술 공동연구개발 협력관계를 구축해 향후 나노기술 개발 과제 발굴 및 개발을 통한 상용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 주요 뉴스 (www.se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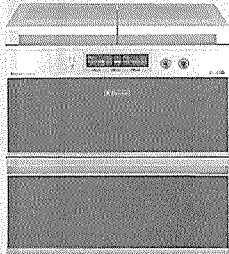
No	제목	일자
1	삼성전자, 아시아 최고 주주가치제고 기업 선정	2005.10.27
2	삼성프린터, 중남미 최고 프린터로 선정	2005.10.27
3	삼성전자 경영비결 세계가 주목한다	2005.10.26
4	삼성전자, 부머 어시스턴 재단에 '감동' 터치다운	2005.10.25
5	삼성전자, 양방향 데이터 방송기술 지상파 DMB폰	2005.10.24
6	삼성전자 권오현사장, "미래 SOC시장은 IDM.."	2005.10.21
7	삼성전자 중국서 와이브로·TD-SCDMA 등...	2005.10.20
8	삼성전자, 다양한 신개념 디스플레이 기술 과시	2005.10.18
9	삼성전자, 대만에서 '가족 대축제의 장' 개최	2005.10.18
10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2조 1,300억원	2005.10.15
11	삼성전자, 지역사회에 '뛰는 사랑' 펼친다	2005.10.14
12	삼성전자, 디자인경영 10년...성과 가시화	2005.10.11

LG전자 주요 뉴스 (www.lge.co.kr)

No	제목	일자
1	LG전자, 디렉TV사에 MPEG4 HD급 셋톱박스 세계...	2005.10.25
2	LG전자, KAIST 나노종합팹센터와 나노분야 기술...	2005.10.22
3	LG전자 휘센, 디자인이 작품으로 재탄생!	2005.10.20
4	LG전자, MS社와 전략적 제휴 통한 EPG 서비스..	2005.10.20
5	LG전자, 3분기 매출 6조183억원, 영업이익 2,799억원..	2005.10.19
6	LG전자, '프로슈머 마케팅' 전개	2005.10.18
7	LG전자 시스템 에어컨 2010년 세계 1위 달성	2005.10.14
8	LG전자 노동조합, "글로벌사업 성공비결 배우자"	2005.10.12
9	LG전자, '고객 사랑(애) 페스티벌' 실시	2005.10.11
10	'LG 하키 게임(Hockey Games)' 공식 후원	2005.10.08
11	LG전자, 무선 홈시어터 대중화 선도한다	2005.10.07
12	LG전자, 미 지상파 셋톱박스 개발업체로 선정	2005.10.07

대우일렉, 제철만난 김치냉장고 클라씨

대우일렉의 클라씨(Klasse) 김치냉장고 신제품군은 유산균 발효제어기능으로 김치의 신맛을 방지하고, 추가숙성기능으로 구입김치의 익은 맛을 조절하며, 김치 종류별 보관기능으로 간편하게 김치 종류별 최적의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유산균 발효제어기능은 김치의 숙성기간을 초·중·후기로 나눠, 숙성초기 급속 냉각으로 김치조직을 보호하여 신맛을 내는 균내를 방지하고, 숙성중기 삼한사온 패턴시스템으로 유산균을 최적화시키며, 숙성후기에는 냉기쇼크로 효모균의 성장을 억제해 최장 6개월간 보관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설명이다.

내부 김치통으로는 장영실상 수상과 미국 FDA 승인에 빛나는 국내최초 무색소·무환경호르몬 파워크리스탈(Power Crystal) 용기를 채택, 기존 15분의 1의 산소투과율로 김치 보관기간을 연장시켜준다.

김치냄새 제거를 위해 냉장고 내부에 나노실버 항균·탈취기능을 적용하고 문 안쪽 입체 회오리 냉각 팬 중심에 녹차 카데킨 필터를 설치했으며, 공기 흡입시 강력한 항균작용을 하는 제오라이트 성분을 통해 탈취성능을 향상 시켰다.

LG필립스LCD, RoHS 관련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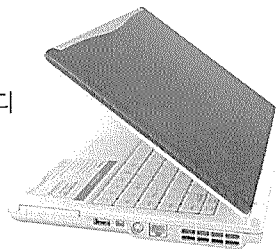
LG필립스LCD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내 한국고정시험기관 인정기구(KOLAS Korean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10월 26일 밝혔다.

LG필립스LCD가 인정을 받은 분야는 유럽 연합(EU)이 발효한 환경 규제 법규인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관련 분야로 LCD 업계는 물론 전기전자·재료관련 업체 중 최하다. 이에 따라 LG필립스LCD는 해외 고객의 제품 유해물질 분석 공인성적서 요구에 대해 자체 성적서로 대응이 가능하게 돼 외부 분석 의뢰 비용 및 업무 처리시간 등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LG필립스LCD는 KOLAS 인정을 받기 위해 지난 1년간 사내 프로젝트를 통해 시험 의뢰, 분석 결과 및 설문 평가에 이르는 방대한 시험소 전반의 문서와 자료를 전산화하는 정보 관리 시스템 (LIMS: 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는 한편 'e-KOLAS 프로젝트'를 통한 KOLAS 인정을 준비, 국내 최초의 페이퍼리스(Paperles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삼보컴퓨터 "2005 우수 산업 디자인" 상품으로 선정

삼보컴퓨터가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한 '2005 우수 산업 디자인' 상품으로 초소형 미니 노트북



'에버라텍 1000·4200', 슬림 데스크톱PC '드림시스 TU', 20.1인치 대화면 모니터 'TGL AD2010' 등 총 4개 모델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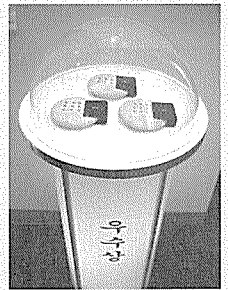
삼보는 2003년 '드림시스 LA·AH'를 시작으로 지난해 서랍형 PC '루온 모듈러', 일체형 PC '루온 올인원', 엔터테인먼트 PC '드림시스 TG/PD', 미디어센터 PC '드

림시스 SM'에 이어 올해 노트북·슬림 PC·LCD 모니터까지 굿 디자인 마크를 획득해 전 라인업을 통틀어 확실한 디자인 경쟁력을 보여줬다.

김종길 삼보컴퓨터 기술연구소 디자인팀장은 "PC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전 세계적으로 기술과 정보의 평준화가 이루어져 단순한 사양과 기능만으로는 차별화가 힘들다"며 "디자인 차별화만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기업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EC, 제10회 전자부품기술대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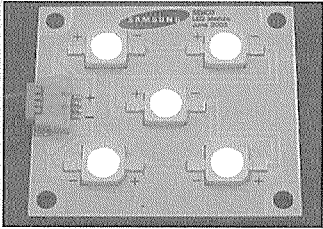
지난 10월11일, 2005한국전자전과 함께 열린 '전자부품기술대상' 시상식에서 KEC는 개인부문에서 대통령상과 제품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개인부문의 대통령상을 받은 KEC의 윤동현 상무는 비메모리 반도체 소자 및 공정 개발에 매진하여 국내 반도체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과 막대한 수입 대체 효과를 발생시키는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술 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이 인정되어 대통령상이라는 개인부문 최대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유비쿼터스 시대의 핵심 기술인 실리콘 압력센서를 국산화시킴으로써 국내 반도체 기술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제품부문에서는 휴대폰용 SAW 듀플렉서가 우수상(산업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KEC의 SAW 듀플렉서는 CDMA450방식으로서 신호의 간섭과 잡음을 대폭 감소시키고, 회로의 단순화와 휴대폰 사이즈 최소화함과 동시에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였다.

삼성전기, LCD BLU와 조명용 LED 시장 진출



삼성전기는 LCD TV용 백라이트유닛(BLU)과 조명용 발광다이오드(LED·사진) 시장에 진출한다고 10월 9일 밝혔다.

그동안 휴대폰용 LED만 만들던 삼성전기는 시장 규모가 훨씬 큰 LCD BLU 및 조명용 LED 시장에 진출, 오는 2010년까지 이 분야에서 1조2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기는 최근 수십명의 광학 설계인력을 보강, 제품 개발을 마쳤다.

LED BLU는 냉음극형광램프(CCFL)를 이용한 기존 BLU에 비해 영상 품질이 좋고 수은을 사용하지 않아 급성장이 예상되는 제품이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장이 만들어져 2009년에는 2조7000억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성전기는 현재 7인치 카 내비게이션과 24인치 모니터, 12.1인치 노트북, 40인치 LCD TV 등의 LED BLU 개발을 마쳤다.

삼성전기는 이 가운데 유럽연합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으로 인해 급성장이 예상되는 카 내비게이션용 LED BLU와 세계 최저 소비전력에 기존 제품보다 50% 가격을 내린 40인치 LCD TV용 LED BLU부터 사업화한다는 방침이다.

레인콤, 1억1700만달러어치의 MP3P 수출

레인콤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MP3플레이어 시장 진출을 위한 확실한 입지를 마련했다.

휴대형 멀티미디어기기 업체 레인콤은 10

월 19일 아랍에미리트 샤라프 그룹(<http://www.Sharafgroup.com>)과 3년간 1억1700만달러어치의 MP3플레이어 수출 계약을 했다고 10월 20일 밝혔다.

이 같은 수출규모는 대수로 90만대(연간 평균 30만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모지와 다름없던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MP3플레이어 수출의 교두보를 구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레인콤은 특히 지난 8월 인도 시장에 이어 이번 중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성공함으로써 글로벌 톱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본사를 둔 샤라프 그룹은 중동·아시아 및 아프리카 15개국 지사와 해운·유통 및 건설 등의 계열사를 운영하는 업체다.

특히 제품이 판매되는 유통망은 패션 등과 함께 가전제품을 공급하는 고급형 복합 유통점으로 아이리버 제품의 고급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레인콤은 우선 U10, N11, T시리즈, H시리즈 등 하드웨어와 낸드플래시 타입의 제품을 모두 판매하며, 그중 히트상품을 선정해 현지 주력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제품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선적된다.



삼성SDI, 수동형 OLED 누적출하 3000만대 돌파

삼성SDI가 세계 최초로 수동형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누적 출하량 3000만대 돌파를 기념해 축하식을 거행했다.

삼성SDI는 지난 2002년 8월부터 양산하



고 있는 수동형 OLED(유기발광다이오드)가 세계 최초로 누적 출하량 3,000만대를 돌파했다고 10월 11일 밝혔다.

특히 하반기들어 휴대폰용 OLED 수요가 대폭 증가, 올 2월 누적 출하량 2000만대를 달성한지 단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1000만대를 추가로 출하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경쟁업체인 일본의 파이어나어와 대만의 라이트디스플레이가 각각 2000년과 2001년 수동형 OLED를 양산을 시작했지만 현재 누적 출하량은 파이어나어가 총 2100만대, 라이트디스플레이는 총 2500만대 정도에 불과하다.

삼성SDI는 2003년 7월 100만대, 2004년 4월 1000만대의 누적 출하량을 기록한 바 있으며, 현재 부산공장에 월 350만개의 수동형 OLED 최대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 2002년 수동형 OLED 양산을 시작해 그 해 24만대, 2003년 500만대, 지난해 1390만대의 연 출하량을 달성했다.

김순택 사장은 "먼저 양산을 시작한 경쟁업체를 제치고 누적 출하 3000만대를 달성함으로써 OLED 최고기업 위상을 재확인했다"며 "지속적인 원가경쟁력 확보와 차별화된 신제품을 통해 휴대폰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승리자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엠텍비전, 2005년 3분기 매출 443억원 달성

카메라폰 IC업체인 엠텍비전이 2005년 3분기 결산 기준으로 443억원의 매출과 85

역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10월 25일 발표했다.

엠텍비전의 3분기 매출액은 442.7억원으로 전분기 402억원에 비해 10.1%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전년 동기 427억원 비해 3.7%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영업이익은 전분기 81억원에 비해 4.9% 증가했다.

엠텍비전은 사상 최대의 매출을 달성한 이유를 기존 출시되었던 VGA급 CCP(카메라 컨트롤 프로세서)가 안정적인 매출을 이루고 있으며, MEGA급 CCP와 MMP(모바일 멀티미디어 플랫폼)가 멀티미디어폰에 장착되어 매출 성장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시장으로 형성되고 있는 CSP(카메라 시그널 프로세서)도 매출이 본격화 건조한 매출을 이루어냈다고 밝혔다.

제품별 매출 비중은 VGA급 CCP가 51%를 차지했고 멀티미디어폰에 적용되는 MEGA급 CCP는 34%, MMP는 8%, CSP는 7%를 차지해 고부가 제품인 MEGA급 CCP와 MMP, CSP가 전체 매출의 49%를 차지해 고 영업이익 실현에 기여했다.

진동모터업계 수출로 위기 극복 나선다

휴대폰 진동모터 업체들이 해외 휴대폰 시장에 문을 두드리며 위기를 극복했다.

진동모터 시장은 지난해 절정에 달한 이후, 올 상반기부터 주춤하기 시작해 업계 전체가 부진을 면치 못했다. 하반기 국내 휴대폰 업계의 성장이 기대되지만 상반기 내내 고전했던 업체들은 수출을 확대해 매출 다변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진동모터 업체들이 활로 개척을 위해 수출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성과가 하나 둘 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 업체는 소량이나마 매출 다변화에 의의를 두고 수출길을 열었다.

도우테크(대표 박용언)는 분동을 내장한 드럼

형 진동모터 일본 수출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 회사는 일본 간이휴대폰(PHS) 업체인 A사에 초기물량으로 1만7000개의 진동모터를 공급했다. 도우테크는 이 성과를 이어 일본 대형 휴대폰·게임기 업체와의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일본 수출을 위해 현지 업체와 함께 합작회사(OECTOW)를 설립하기도 했다.

박용언 사장은 “국내에서는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져서 일본 수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화전자(대표 김상면)는 지난해에 비해 30%가량 떨어진 실적을 수출로 회복 중이다. 프랑스와 중국 현지 휴대폰업체에 이어 대만 중소 휴대폰업체에도 공급을 시작했다. 자화전자는 유럽 전역으로 진동모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마케팅을 벌였다. 해외 업체에 소량씩이나마 34개 해외 업체에 수출을 진행해 매출처 다변화에 성공했다.

진동모터 생산량의 대부분을 국내 한 업체에 공급하는 모아텍(대표 임종관)도 물량 확대를 위해 해외 업체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전북지역에서 LS전선에 대대적 환영 행사를 개최

전국 지자체들이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지역으로 이전해 온 대기업의 환영 행사를 대대적으로 마련중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 전주·군산상공회의소는 오는 10월 25일 전북도민의 날에 군산공설운동장에서 ‘LS전선 및 대상 도민 환영대회’를 개최하였다. LS전선은 올 초 경기 군포공장의 기계 사업부(트랙터와 사출기 등)를 완주와 전주공장으로 이전했으며 전분당 생산업체인 대상도 서울공장을 군산으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현재 이전절차를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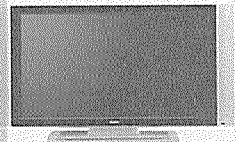
이번 기념행사에서 두 업체 직원들은 전북

14개 시·군 대표 선수단과 함께 가장 행렬단을 구성해 입장하고 구자열 LS전선 부회장은 전북지역의 기계산업 집적화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도민증과 명예도민패를 받을 예정이다. 또 두 회사에 이전보조금 50억 원이 지급되며 기업이전을 환영하는 대형 매스게임도 펼쳐진다.

이와는 별도로 도와 시는 전북도청 도민광장에 LS전선과 대상 홍보관을 설치해 홍보 및 판촉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퓨전국악과 댄스공연, 치어리더쇼, 노래자랑,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레전자가 영국 딕슨사에 공급하는 40인치 LCD TV

디지털 디스플레이 전문기업 이레전자산업은 내달부터 자사 브랜드로 영국



에 LCD TV를 판매한다고 10월 19일 밝혔다. 이레전자는 그간 해외시장에 디지털TV를 OEM 수출방식으로 공급해 왔으나, 최근 영국 최대 전자전문 유통업체인 ‘딕슨(DIXON)사’와 프리미엄급 40인치 LCD TV를 자사 브랜드로 공급기로 합의, 수출에 나선다. 회사측은 공급 물량은 올 연말까지 2500대 수준이며 2006년부터는 월1000대 이상 규모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레전자는 딕슨사와 HD급 PDP TV 42인치와 50인치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이레전자는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제품 생산과 AS처리를 위해 2004년 8월 영국에 생산법인을 설립하는 등 OEM 수출방식에서 탈피한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해왔다. 딕슨사 납품에 앞서 지난 9월 영국 최대 홈쇼핑업체인 QVC사에도 LCD TV 제품을 공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국시장에서 마케팅을 강화해 왔다.